

환경인의 신사(紳士)

이승무(李承務) 박사(2)

글/사진 : 박 창 근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회의회 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이승무 박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칼’ 이라고 한다.

‘칼’ 같이 날카롭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칼’ 같이 정확하시다는 뜻이다. 지난 호에도 이승무 박사님의 인간적 특징으로 매사에 정확하고, 분명한 점을 들었지만, 이승무 박사님과 약속은 어떤 경우에서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승무 박사님과 30여년을 가까이 친해오면서 느낀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 또한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난(複雜多難)한 세상에서 항상 약속을 100%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승무 박사님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무 박사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이승무 박사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어떤 경우도 지키신다. 거의 100% ‘칼’ 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승무 박사님을 두려워한다.

이승무 박사님의 약속 중에서도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칼’ 정도가 아니라, ‘면도칼(날)’ 수준이시다. 분초(分秒)도 따지실 정도다. 필자도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칼’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승무 박사님에 비하면, 무딘 ‘식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시간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큰일을 도모하지 말라”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당시 필자의 첫 직장인 S신문사의 상사인 A 편집국장님이 하신 말이다. 그 후, 필자는 이 말을 가슴깊이 담아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누군가와 무슨 일을 기획하고 도모할 때, 필자는 먼저 그 사람과 시간 약속을 몇 번 해본다.

시간 약속이 정확하면, 일을 진행하고, 성사시킨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확률이 50%가 넘으면, 일의 진행을 가차 없이 포기한다. 설령 그러 인해서 큰 손실이 되어도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필자가 요긴한 일로, 누군가와 약속을 했었을 때도, 상대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자리를 뜬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봐야, 크게 득(得) 될 것이 없고 나중에 손(損)이 될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승무 박사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남들은 무서워(?)하는 이승무 박사님이 전혀 두렵지 않고, 이승무 박사님 또한 필자를 신뢰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에도 이승무 박사님과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관해 2천여 면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함께 만들어냈다. 남들은 1년 이상이 걸릴 책을 불과 4개월 정도에 완성했다. 이승무 박사님이나 필자 모두 일을 함에 있어, 꾸물거리지 못하는 천성에 이룩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또 한편의 책을 기획하기 위하여 만나 뵈었는데, 그렇게 즐기시던 담배를 푹 끊으셨다. 즐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우시는… chain smoker이셨던 박사님이 담배를 끊으신 것이다. 그것도 망설임이나, 금단현상에 따른 주저 없이 단칼에 담배를 푹 끊으신 것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느 해, 재무장관 후보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소개할 때, 단 한마디 “제가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30년 이상을 피우던 담배를 지난달에 딱 끊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후보를 소개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즉, 그만큼 결단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임으로 재무장관을 맡겨도 될 것이라는 명언이다.

매사에 분명하시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철저하신 이승무 박사님은 지금도 거의 매일 같이 여의도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폐기물 대책에 관한 일을 도모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인생 70을 넘으면 대부분 그동안의 일을 은퇴하고, 시간적 여유(餘裕)를 즐기는 것이 상례인데, 이승무 박사님은 해가 갈수록 더욱 진취적이 되시는 것은 그 분명하고 열정적인 ‘칼’ 같은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셔서 이 나라의 환경대책에 더욱 기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음은 필자의 의견만이 아닐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사진 설명:

한국소각기술협의회 '2005 춘계총회 및 기술워크숍' 개회사 장면